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7년 9월 8일(월) 제696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관 편집인 김경 주간 번역원 편집장 김태형 인쇄인 홍운주 외대신문사 981-4151, 982-7120[편] 외대학보사 학생기자실 (서울) 031-4152, 4468 FAX 981-4183 (용인) 033-30-4112 서울시 종로구 이동로 270-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황산리 신 80

교지, “지도교수 선임 불가”...

학교측, “교비 지금 중단”

방중에 있었던 ‘외대’ 교지 편집자들은 문제와 서울대에서 학생운동·교수연구 등·소극장 문제 등 일련의 학생자치권 탄압에 학생들의 반발과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8월(목), 서울대에서 총학생회는 임시학생운영위원회를 열어 세가지 문제를 집중 의제로 했다.

이 날 ‘외대’ 교지편집위원회와 편집장 정태형(사법·한국3)군은 △지금까지의 상황 △교지편집위원회의 입장과 계획 △교지편집위원회와의 협상 등을 보고 했다. 교지측은 지난 6일(금) 가진 학생 운동 등을 꾀하고 있다.

체장과의 면담에서 ‘외대교지이기 때문에 학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대학당국의 입장을 확인한다. 이어 오늘(8일)은 학생자치권과의 협상이 한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10일(수)에는 총장과의 면담이 계획돼 있다.

그러나 교지측은 ‘지도교수체가 실시되는 티하고 편집자를 권리로 침해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며 추석 전까지를 1차 대응기간으로 잡고 9월 첫주(4~6일)에는 대자보작업과 이첨선전장을, 9월 둘째주에는 ‘선전과 국대화를 위한 서명 운동 등을 보고 표명했다.

한편 학생식당과 교수연구동 소극장문

체에 대해서도 △학생식당 직원 △94년부터 조성된 식당금 50%의 달성 및 사용 △예식장구조에서 공연장형태로의 재공사 △학생의 소극장 우선 사용권 보장을 청탁을 정했다.

앞으로 학생회는 △오늘(9일)부터 10일(수)까지 서운동 및 이동학회 △각 단위별 토론회 △9일(화) 오후 2시 30분 ‘학생자치권 수호를 위한 스트рай크’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박운정기자



바쁜 결음

개강을 맞아 한총련 강화·혁신을 위한 학생회 일군들의 움직임이 본격화이다. 사진은 용인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아침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학생회 일꾼들의 모습.

임승희 기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선언

용인 정기학생총회, 오는 26일 열릴 예정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한총련 혁신 강화와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위한 선언 운동’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금) 정기학 생총회까지 한총련 혁신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오는 11일(목)까지 진행되는 선언운동에는 총학생회장과 학생회 일군들이 직접 △이참 교내선전전 △강의실 방문 △대자보 게시 △간단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서면운동과 함께 청원문을 모집하여 신문에 광고를 실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김홍철(자연·물리 4)군은 “한총련 혁신에 대한 학우들의 의지를 담으려 한다”며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여 한총련 혁신에 대한 우리들의 열망을 보여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26일 정기학생총회가 오는 26일(금) 노천극장에서 “7년이 단장을 겪어 걸어온 한 걸, 다시 한총련 전면혁신으로 나아갑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열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에 보복을 위한 학술회’와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위한 선언운동에 대한 1차 결과와 보고 △소상기 사업 및 결산 보고 △‘한총련 혁신강화와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위한 선언운동에 대한 1차 결과와 보고 △소상기 사업계획 인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김재권 기자

원장은 현시기 전·노사법 반대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족민주운동을 정치, 사회의 중심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과거청년의 근본적인 방향이라는 내용의 주제를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를 발표한 괴노현 방송대학과 교수는 과거 청년운동에 있어 특히 진상규명, 형사처벌, 민사배상 등에 걸림돌이 되어 시효제도에 대한 예외규정과 특별법의 제정 등의 제도개선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토론회에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명예에 보복을 위한 학술회의 차기 날인 10월(화) 3차 회의를 글로로 논의를 정리했다.

이번 3차 회의는 1, 2차 회의에서 학교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근본적 실천방법에 대한 논의의 차이였다.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한 민족민주연대 통일전국연합(국연연합) 양재덕 정치위

김정희 기자

민의자

빛은 깊어야 한다

▲빛을 졌으면 깊어야 한다. 빛을 깊지 않고 도피하면 체권자들에게 죽이는 신세가 된다. 그리고 그 도피생활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 꿈寐없이 자신을 찾는 체권자들의 드립김이 항상 뒤따라온다. 도피생활을 하며 항상 미운 조려하는 마음이 결국 병이 돼 입원하는 사람, 불안감을 가지고 떠나거나 끝내는 사람도 있다.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는 그들은 그대로 최소한 양심적이다.

▲지금 깊어지는 광주시민을 수천명이나 학살한 주범 두 전직 대통령과 그 심복들이 수감돼 있다. 그러나 그들에겐 뉘우침이라 말을 읊을 수 없다. 그들의 곁곳에 들어온 일글에선 지난 행동에 대한 추호의 부끄러움도 엿볼 수 없다. 담담감사도 국민들도 아직까지는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역사상에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이해하기는데 실패한 듯 하다. 그들에게 전직 대통령이란 명성을 떨어준 국민들이 원망스러운 지경이다. 그들은 아직도 수천명의 학살아이 ‘나리를 위한 구국의 결연’이었다는 굳은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들에겐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의 행동이 국민에게 얼마나 깊은 ‘빛’인지 알겠단 한.

▲그런데 그들에 대한 시민논의가 물려온다. 광주시민들에게 안겨준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 물려온다. 그것이 단 몇년만에 청산이 됐단 말인가. 더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학

김태형

지면 안내

공부 뜻이는 것도 서슴는데 이번 간
부디 머물고 드리고?3면
공·학생회 간부 자격이 2.5이상
으로 강화될 예상이라고 하는데...
신자유주의, 무엇을 위한 자유(?)

...4면
신자유주의 칼날이 전세계 노동자들
의 일자리를 자르고 있다.
법학생활 실증조사6면
외대생 48%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알림

외대학보 697호는
한가위를 맞아
9월 29일(월)자로 발행됩니다.

본사 23일(화) 수습기사 모집

외대

38

학우들이 낸 교지대금으로 운영·제작되어 온

‘외대교지’는 정직한 언론을 지켜왔습니다.

편집자들은 외대인의 권리입니다.

외대인은 외대교지가 학우들에게 시립받는

대중언론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측은 자못 교지에 대한 편집자들을 탄압이

될 수 있는 지도교수 선임요구를 중단하고

재정 지원 등 교지의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자지·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
지
편
집
위
는
학
생
자
자
기
구
입
니
다

편집자들은 단한 외대의 혁신을 위하여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 하나님을 위해 전진하는 9대 단결 연합
- 31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 18대 용인캠퍼스

사설

교지의 편집자율권 보장해야

학생처에서 학생자치기구이자 언론사인 교지에 '지도교수를 선임하겠다고 한다.'라는 글 교지의 편집자율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라는 느낌을 자울 수 없다. 교지가 그 동안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교지는 '현 시점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학우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고 못하는 것 같다'라는 문제제시와 자기 반성 속에서 혁신을 위해 즉, 교지가 대중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화기 1회 발행에서 화기 2회 일별로' 됐거나 저자 학생들에게 더기기로 하였다 것이다. 이는 외대언론들의 발달로도 바탕을 둔다. 18세나 등록금에서 전원이라는 거금을 부자들은 실질적 주주인 학생들에게도, 교지가 독자의 구미에 맞게 거듭나는 것은 원망할 일이었다.

그러나 교지 발간 횟수를 늘리며 되면 자연스럽게 매체 발행비용이 높게 된다.

현제 교지 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크게 실질적인 교지제작비와 교지제작을 위한 부수적인 부수요금의 사업비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으로 매체제작비는 조판비, 인쇄비, 원고료, 취재비 등이고 부수료는 자료비(문, 간접 구독료), 기자제작(컴퓨터, 폰스), 사업비(수습모집, 학술·문화학술, 편집, 등등), 대대학으로 보이는 교지제작비 등이다. 학생들이 내는 교지제작은 매체제작비로 쓰여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교지의 모든 예산 비용으로 쓰여고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공식적인 언론자체인 본보나 영자신문과 대학교방송국은 매체제작 외의 다른 모든 비용이 신문사 등의 학교기관을 통해 터여 범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나 학생자치기구인 교자는 이러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한 학기 대략 2천 민원의 교지제작은 교지제작비를 조금 넘는다. 편집위원회들의 강한금이나 사내, 광고로도 겨우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언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여단 학생자치기구와 같이 교지제작을 위한 부수적인 사업비 등을 학교측이 지원하고 교지제작은 매체비용에만 사용하게 해당되는 것은 교지축의 입장이다.

교자는 지난 1학기동안 학생처와 교지대금 인상을 힘의 해로운 한편, 서울 베슬터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울산대총장의 학생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았다. 교지의 실질적 주주가 학생들인 학생들의 대표자는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학생처는 학생들의 판단과 결정에는 상관없이 교지의 지도교수선임문제로 교지대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며 나이가 2학기 교지발행 예산마저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교자는 여러 학내언론기관과는 달리 처음 시작이 출판학회 학술부 기관으로 출발했으나 기구와 회원과 논조의 입장은 80년대 중반 독립된 엄연한 학생자치기구이다.

학생처의 입장에 즉, 철저히 학생들은 입장에서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 언론체제로 교수나 여러 언론기자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편집자율권 침해로 번질 위험성이 다분하다. 학생처는 지도교수 선임이 교지의 대중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지도교수선임은 그로인 학생처에서 교지 기사에 대한 영향을 하고자 했던 것과는 차이로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처에서는 다른 언론기관에 지도교수가 있는데 교지만 없어서는 안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데 이는 모순이다. 교자는 학내 유일한 학생자치기구로서의 언론기자인 것이다. 출판학회의 사업에 대해 교수들이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이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세간소설계 언론의 자주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더라도 이에 대한 중요성, 특히 대학의 언론으로서 가져야 할 진보성과 진실성을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이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함은 당위인 것이다. 교자는 전보적이지만 대중적인 매체로 거론이나고자 하는 이러한 논리를 대체로 겨우는 못할 지지점과 고지에 인상과 지도교수 선임의 문제를 연결해서는 인 된다. 발간 횟수는 많을 수록 대중성 확보가 쉽다는 것을 감안하면 절대 이들이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지도교수 선임의 의도가 기사내용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조정 즉, 편집자권을 행사하기 위함이 다른점으로 대체로 학생처는 지금의 생각을 버리고 당장 2학기 예산부터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교지와의 협상과정에서 보인 학생대표자들의 의사와 무시하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하는 권위주의적이고 월권적인 태도를 하루빨리 벼려야 한다.

축산식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자 원고가 4~5회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눕니다.

원고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이며, 서울·울산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하이텔 minerva, 나우누리(OEAD))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공공요금 인하를...

명절이나 연휴 또는 학기가 지나면서 치러지는 연중행사가 있다. 그것은 광공공요금의 인상이다. 전기요금·수도세에 이어 저하율비와 버스비 그리고 9월 1일을 기하여 전화요금까지 40%에서 50%로 올랐다. 그러면 광공공요금의 인상은 우리와 하비인상, 이것은 한국의 한 학생으로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은연증의 광공공요금으로 치부해 있는 것의 문제로 학생들이 부담을 갖고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점에서 광공공 요금에 대한 영향을 끼친다.

우선 일본은 우리의 생활을 중심에서 쓰다가 때문에 대부분의 이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 준다.

예를 들어 저하율비를 적용하고자 더니거나 학생들이 더니는 교육인구 1구간의 비용이 50원 50원에 따라 하루에 100원 이상을 더 쓰게 되는 것이다. 대근대나 광공공요금은 조금씩 오르는 것이 아니라 20%를 넘는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며 변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을 주게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광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를 높이는 데 한 몫을 한다. 일반 요금을 인상하면서 물가를 인정하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균형적 대처를 미흡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하면서 대중교통의 요금을 인상하여 기회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세수를 하려고 하면 불편하게 물을 구부러서 해야 하고 비누도 없으니까 자거울이 있으나마는 그냥 나갈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 곳에는 수도 꼭지만 하나 있고 물이 내려가려면 다른 화장실처럼 하수도로 물을 연결되는 것

더러도 자동차로 운전을 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본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배기ガ스 등의 공기오염 정화, 교통체증에 의한 낭비를 수치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학생에게는 광공공요금의 우리와 하비인상, 이것은 한국의 한 학생으로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은연증의 광공공요금으로 치부해 있는 것의 문제로 학생들이 부담을 갖고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없다면 어

떻게 되겠는가? 이 점에서 광공공 요금에 대한 영향을 끼친다.

전지혜(동양·티커어 1)

화장실에 관심을

나는 본관 화장실을 어떤 우리 학교의 화장실지도도 애용한다. 왜냐하면 일을 보고 난 후 기장 기본 좋은 손을 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회관의 3층 화장실을 보면 손을 씻거나 일과를 씻기에는 다소 불편하게 시설이 되어있다.

학관 3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은 달 수도 꼭 하나만 갖추어야 있다. 많은 학생들이 거기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세수를 하려고 하면 불편하게 물을 구부러서 해야 하고 비누도 없으니까 자거울이 있으나마는 그냥 나갈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 곳에는 수도 꼭지만 하나 있고 물이 내려가려면 다른 화장실처럼 하수도로 물을 연결되는 것

이 아니라 화장실 바닥에 있는 구멍으로 그냥 들어간다. 그리고 가끔 학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무심코 버려 퇴지나 담배꽁초가 그런 물을 의해 흘러서 그 아래로 물을 구멍으로 가버린다. 그때마다 막힌다. 그래서 화장실 바닥에 막힌 구멍에 물들이거나 끌 때가 많다.

민들에게 그렇게 되면 화장실을 들어가고 싶어도 그냥 시간이 많이 걸려 1층에 있는 화장실까지 가게 된다.

편하게 손을 씻고 일과를 끊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물들이는 권리이다. 다만에는 있는 화장실의 수도 꼭지는 학교에서 기관적 빨리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다른 층에는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베이스에 물을 찾고 놓고 수도꼭지를 뜯어내고 거기다 세수대를 하나

자이 놓아야 할 것이다. 그고기에 공간이 부족하면 양에 있는 벽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만들어 놓아도 상관없을 것이다.

고현창(서양·영어 2)

우리가 권리를 내세우자

'모든 사회는 살아있는 운동주지와 죽어버린 이단자들은 모두 경기를 표한다.' 최근 학교에서 많이 말하지고 있는 학교시설(식당, 자판기, 소강장, 서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나는 나의 불만을 실행으로 옮기기 못하는 이단자일 것이다.

그리고 외대에서는 학교에서 처음으로 비비미며 '음, 외대도 편찮은 걸?'하고 중얼거렸던 때가 채 일년도 되지 않았다. 중얼거렸던 때가 채 일년도 되지 않았다.

세계,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과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볼 때 선거관의 혹색선전은 특정한 후보자를 인식할 뿐 또는 인신공격적 정보를 담고 있어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자지 손상을 입게 된다.

둘째, 이런 이유의 혹색선전이 선거전에 등장하면 한 쪽의 매도와 다른 쪽의 핵심을 민족으로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비판된다.

셋째, 이런 혹색선전으로 일컬진 선거의 결기는 진 쪽이 이긴 쪽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후유증을 남긴다. 그 후유증은 정치적 태도이며 법원의 판결이 치유하지 않거나 주로 이아인의 극한 대결을 정치인을 가중시킨다.

이런 장에서

재무장하고 돌아온 간부 자격

C+ 이상 · 4~6학기 재학 기준 강화돼

방중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학생회 간부·자격기준을 평균성적이 C+(평점 2.5) 이상인 4~6학기로 속한 학생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교협은 유기점과 이와 학사점과 또는 학사별을 추운 학생도 학생회간부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평점 2.5 이하거나 진계경험이 있는 학생은 단과대학 회장과 이와 학생회 간부가 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도 같은 내용의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것으로 드리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회 간부자격기준은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금) 열린

전체교수간담회에서 학생처는 '학생간부 자격기준을 평균성적이 C+(평점 2.5) 이상인 4~6학기로 속한 학생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학생회간부를 서둘러서 걸렸다."라며 "그러나 곧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부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곧 자격기준이 강화될 것을 비유했다.

그러나 사문화된 성적점수를 학생회간부의 구실에 이용해왔던 점에 비춰볼 때, 같은 움직임은 학생회간부를 강화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게 학생들의 뿐이다.

한편 헌법법률학 이후로 공인인증과 한총련 이직제 등 관련학회·규정의 제정비·보완추진, '근로장학생(간부학생) 생기금' 평균점 2.0에서 상향화정을 추진'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배움터 오세관 학생주임은 "아직 내부에서 걸렸다"

라며 "그러나 곧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부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곧 자격기준이 강화될 것을 비유했다.

그러나 사문화된 성적점수를 학생회간부의 구실에 이용해왔던 점에 비춰볼 때, 같은 움직임은 학생회간부를 강화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게 학생들의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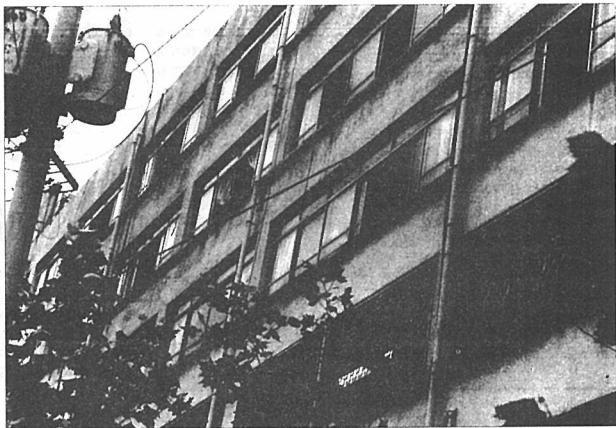
설령 그 대표가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학생회간부를 인정하지 않

는 것은 아불상설이다. 또 학생들이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 일해온 사람에게 공부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성적이 간부자격요건 중 결정적인 항목이 될 수 없다.

즉, 학생처에 대한 탄압은 '일부 운동권에 대한 탄압'이 아닌 '학생들의 자치권에 대한 탄압'으로 봐야한다.

그리므로 구시대적 논리의 성적종합을 철폐하기는 커녕 강화하려는 대교당국과 정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명백히 철회되어야 한다.

박윤정 기자



거울도 안보는 외대
서울배움터 후문쪽에서 바라본 우리학교 건물이다. 철이 모두 벗겨진채 농들이 훌러내린 자국이 보이기도 한다. 새로 생긴 건물들과 현운에 비교가 된다. 주민들은 예의로운 입장을 갖는다.

(+ 인, 대자보 찰거 관련 미찰)

□ 서울배움터 복지매장에서 찾겨난 직원을 만나

언제까지 '복지' 보다

'대종평' 인가

"능력 없어 쫓겨나면 억울하진 않다"

대학당국, 상식 벗어난 횡포

9월 5일(금)까지 학내에 있는 대자보를 계시판 이외의 공간에 부착할 경우 모두 철거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모든 건물 정문에 붙인 서울배움터 학생처와 이에 반대하는 학생측과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처에서 붙인 공고에는 '대학종합평가제(대종평)'를 앞두고 학내의 환경미화를 위해 9월 5일(금)까지 건물내에 있는 모든 대자보를 떼고 지정된 계시판에 한하여 붙이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부 철거하겠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회원주최전원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대자보를 떼고 계시판에 조작 제대로 미해한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대자보를 철거하는 것은 명백한 학생지지권 침해이다'며 "앞으로 대학당국과 계속 협력을 벌여야 예상된다"고 밝혔다.

학생처의 한 직원은 이와 관련해 "대학평을 준비하면서 학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 소리지만 대학의 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대자보를 철거하는 일은 좋은 것 같다"며 "앞으로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대자보를 철거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총학생회는 대학당국과 협의를 거쳐 '대학당국이 일방적으로 대자보를 철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각 건물에 붙였다.

그러나 총학생회 회원주최전원위원회에서는 '대학평을 준비하면서 학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다'며 "앞으로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대자보를 철거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관련 관계자들마다 임대를 한다는 등 영향을 한다는 등 서로 의견이 있다가 이를 했다. 또 복지매장 임대자 중 한명이 학교주요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냥 내보내기 힘드니까 그런 형식을 취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특별히 잘못한 점이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업체가 남풀까지 학교에서 10여 기관이 넘는 대학의 기념품을 맡고 있고, 공장장악이라 기록도 써다. 능력이 없어서 찾고, 공장장악이라 기록도 써다. 이와 관련 업체를 찾고자 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인간 회내복지의 주된 대상인 학생의 참여가 배제된 것은 문제이다. 우리에게 최악의 고객은 학생들인데, 또, 우리에 대해서도 학교나 재단이 차별화로서의 획득수단을 부리며 상식을 빛난 행동을 하는 것 같다.

박윤정 기자

인재 청탁을 받았나

7월 29일자로 충무로에서 통보가 있다. 8월 31일(토) 계약일정일인해, 일대매장공간을 학교가 사용할 예정이라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총학생회는 대학당국과 협의를 거쳐 '대학당국이 일방적으로 대자보를 철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각 건물에 붙였다.

그러나 총학생회 회원주최전원위원회에서는 '대학평을 준비하면서 학교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좋은 것 같다'며 "앞으로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대자보를 철거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품매장이 있어서는 것이 아닌데 왜 철수하나 대학에서 외래의 특성에 맞는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 직영화한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사

인들은 본보 655호 9월 1일자 3면에서 서울배움터 학생식당 관리기사중 '입자가 재단의 친인척이란다'는 내용에 대해 환상경 충무로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윤정 기자

알립니다

본보 655호 9월 1일자 3면에서 서울배움터 학생식당 관리기사중 '입자가 재단의 친인척이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환상경 충무로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주신규 (1)

박윤정 기자

발낙으로 염침 뿐는 학생 일화...

박윤정 기자

도와주자는 못할 양정..

박윤정 기자

그들이 물을 죽여버리노 -

박윤정 기자

한국 행정.

박윤정 기자

우리의 21세기, 목표는 세계속에 있지만 방법은 사람속에 있습니다.

세계화란 말은 이제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구호가 아니라 당장 실천해야 하는 생존조건입니다. 그런데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세계에 눈을 돌리는 것은

목표를 정해주시는 하지만 그 방법을 제시해주시는 뜻입니다.

선경은 이렇듯 가끔 소중한 자원인 사람개발을 통해 세계화를 준비해왔습니다.

기장 먼저 사업화 해외수출을 시작한 일.

예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기술, 석유를 개발해 오는 일.

중국과 동남아에서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화를 추진하는 일.

세계 최초로 COMA통신서비스를 상용화한 일.

선경이 키운 사람이라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자원으로 미래 대체에너지에서부터 정보통신의 결제체인 이리듐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땅에 새로운 자원개념을 만들고자 가지고 있는 선경.

선경그룹은 유공과 SK Telecom을 중심으로 우리의 21세기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자원인 나라, 대한민국.
그 사람을 키우는 기업, 선경.

SUNKYONG
선경그룹
<http://www.sk.co.kr/>

사람이 자원인 나라
그 사람을 키우는

신자유주의 -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일자리 자르는 '자유'의 칼날

유럽-실업반대투쟁, 중남미-사파티스타 운동

글심는 순서

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과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대한 전세계적 저항들
3. 신자유주의와 민족국가, 민주주의와의 관계

신자유
주의

저항의 주된 이슈

노동시장 유연화와 유럽의 대응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 체제는 우리에게도 이숙한 '민영화, 탈규제, 복지삭감,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모토로하고 있다.

거시경제적 수준에서 '복지 국가'를 유지해 오던 국가들이 '국가의 재정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복지 수혜자 원칙'에 의해 국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의 예산을 사용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영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무료로 의료행사를 해왔던 것을 '사적부담'으로 들고, 영국대주택도 다시 재분배하는 형태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유화, 공기업의 소유형태로 있던 기업' 재정위기, 경영의 전문성 재고라는 이유로 민영화 전략을 실시한다. 그러나 '도로, 철도, 지하철, 버스, 병원, 공무원의 역할' 등은 공

이성을 원칙으로 '사회적 기능'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쟁의 장으로 내놓은 것은 너무도 사회를 무방비 상태로 물고가는 것이다 할 수 있다.

노동시장유연화라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전략에 있어, 자본의 논리는 노동의 논리가 가장 대치되는 전선이다. 자본의 논리는 노동력의 대가 즉, 임금을 집단적으로 경쟁하는 소위 '고비용의 경제구조'로 경쟁의 틀을 바꾸고자 하며,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노동조합의 역할 축소'로 나타난다. 그러나 노동의 논리는 직업을 통

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은 부자에게 문제라고 치더라고, 단지 살기 위해서 '노동할 권리'를 사

회적으로 보장하고 싶은 것이다.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시장에 판매하지 않을 수 있는데, 현실은 시장에 노동력을 팔아 취직한 경리조차도 비탈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개별노동자들로서 자본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자본이 개별적으로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전략을 통해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즉, 노동의 입장은 '(생산성이 발달하였으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더수의 노동자들이 고용될 것을 주장하게 되고 자본은 이를 거부한다.

그러나 노동은 그대로 후회를 예방하였다.

로의 선탄회사에 도입되어 노자주의를 보게된다. 그러나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넓으면 넓을수록 임금하락률 폭도 커 노동자의 임금인하 감수는 10~1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벨기에의 플로스, 웨건 노동자는 임금인하 없는 35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태리, 연금삭감 반대투쟁

이태리에서의 '연금삭감 반대투쟁'을 소개하고

자 한다. 1994년 3월 이태리 투신에서 우파연합은 승리를 했다. 40여년 동안 이탈리아 정부는 군인의 복지와 복지로 키운 노동자와 시민주의 인집정부는 외래되고, 이탈리아 공화국 탄생 이후 최초로 '경직된 워크'의 얼굴을 한 언론 대벌 베를루스코니가 풍자로 등장하기 된 것이다. 당시 프랑스 르 몽드지는 3월 30일자 사설

에서 "부패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크라시가 전력

인 지지를 보였던 베를루스코니의 승리는 이탈리아 정부의 고질적 병폐인 미아미아의 관계가 지

속된다는 것을 드러냈다. 미나폴리네 운동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그 성격이 보수적 으로 회귀한 것을 보인다. 전자 이탈리아당, 북부동맹, 민족동맹으로 구성된 중도우파 당과 연립정부는 복지부문 축소(연금, 의료), 기업의 조세 강감, 통계·경비정지와 억제, 예산절약 대목으로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신보수주의 정책

을 수립하는 데에 착수했다. 두당집단과 대안연구소, 정부기관들은 신자유주의의 주창자, 계획자, 비판

기들의 국제적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그 모든 면에서 경제의 강압

적인 힘에 대해서 뛰어넘고 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 신자유주의를 차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나, 모든 형태의 협상을 철회

하거나 이 협정에 이래기 3대 지도부가 조인한

으로서 지도부는 대중으로부터 강박을 받

았다. 1997년 6월로, 이하 요약)

그리고 현재의 운동의 핵심과 전망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반란은 우리

의 투쟁이 갖는 커다란 양상을 우리들이 상호간

에 고려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신자유주의를 만들어 내고, 강제

하는 기본의 이해와 정체는 확실히 더 많이 조

되어 있고, 응집력을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

매우 급격하고, 거대한 몇몇 기관에 의해 고

인되고, 추진되고 집행되었다. 우리의 분산을

극복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재도약과 유사하게 중

인정증명화하는 조직을 참출하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스케일의 장대성 위에서 차이를 지니는 그간의 종류의 통일성을 경교화하는 것이다.

지구화가 된다는 것이 혁명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정을 집중, 연계, 확산, 상호죽전시키

, 면, 자본과 제국주의의 힘을 그들이 개혁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파멸시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민중들은

그들이 저항하기 원하는 시장, 정치, 경제, 문

화적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혁명적 격변의 순간은 매우 창조적이지만 그

리한 창조성은 집단적 예비기기에 의해 새롭게

경신되고 있는 현존하는 투표로로부터 출현한

다. 요컨대, 혁명이라는 거대한 반란이 있어서

의 관련은 바로 이들은 다양한 철조와 과정들이

자본의 파괴적인 힘, 즉 상품화, 금전화로 가치화

이용국제화 그리고 무언보다도 길어지는 노동,

즉 고역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하는 것에

라 할 수 있다.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밝힐 수 없지만 그들이 1996년 인천에서 상에 올린 글을 통하여, 현재 운동의 전략을 짐작할 수 있다.

사파티스타라는 '신자유주의는 IMF(국제통화기금이나 World Bank(세계은행)) 같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들에 의해 설계되고, 추진되었으며, 보여졌다.

두당집단과 대안연구소, 정부기관들은 신자유주의의 주창자, 계획자, 비판

기들의 국제적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

러한 것들은 그 모든 면에서 경제의 강압

적인 힘에 대해서 뛰어넘고 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 신자유주의를 차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나, 모든 형태의 협상을 철회

하거나 이 협정에 이래기 3대 지도부가 조인한

으로서 지도부는 대중으로부터 강박을 받

았다. 1997년 6월로, 이하 요약)

그리고 현재의 운동의 핵심과 전망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반란은 우리

의 투쟁이 갖는 커다란 양상을 우리들이 상호간

에 고려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신자유주의를 만들어 내고, 강제

하는 기본의 이해와 정체는 확실히 더 많이 조

되어 있고, 응집력을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

매우 급격하고, 거대한 몇몇 기관에 의해 고

인되고, 추진되고 집행되었다. 우리의 분산을

극복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재도약과 유사하게 중

인정증명화하는 조직을 참출하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스케일의 장대성 위에서 차이를 지니는 그간의 종류의 통일성을 경교화하는 것이다.

지구화가 된다는 것이 혁명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정을 집중, 연계, 확산, 상호죽전시키

, 면, 자본과 제국주의의 힘을 그들이 개혁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파멸시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민중들은

그들이 저항하기 원하는 시장, 정치, 경제, 문

화적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사파티스타 운동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혼란에 대한 혼돈의 이론이고, 사회적 낮백상에 대한 아리석은 철상이며 재앙에 대한 파국적인 정치적 혼란방인이다"

그들이 신자유주의를 비비는 관점이다. 이

사파티스타 운동이 순수히 '신자유주의의 재앙에

대항하는' 관점이다. 이는 질본들이 있지만 운동의 내용이 순수할 수 믿을 없고, 이것은 멕시코 운동의 연금삭감에 반발하는 이탈리아 좌익자들(위)과 정부의 대학교육보조금 삭감에 반대하는 파리대학생들의 시위(아래)이다.

최경희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2학기>

One & Only

보는 눈이 다르면 미래가 달라진다.

보다 멀리 볼 줄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직 최고를 향하여 변화와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역사의 바탕으로, 코오롱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이미 과천 신사우를 완공하였고, 첨단 섬유공장,

정보통신, 유통, 레저 등 미래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전보적인 금을 키워가는 사람들

그 곳에 코오롱이 있습니다.

 코오롱

The future together

민·기협 권호현 공동의장 인터뷰

“감옥을 가린다고 양심수가 없어지나”

부정부패·비리 사범 대부분 석방, 양심수는 한명도 없어

양심수·권·기협 인터뷰

“양심수·권·기협은 민족이나 소수집단을 위해서 아니라 민주화와 사회정의, 통일 등의 공동성을 위해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구속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현재 양심수는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그 중에 약 80%는 학생들이다. 청년 가까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김영삼 정권은 이를 양심수라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영삼 정권은 지난 9년간 국정여론에 밀려 정기수·김성미씨를 포함한 300만을 석방했을 뿐 그외에 한명의 양심수도 석방하지 않았다.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노약자들은 사망에 주었다. 감옥을 손으로 기린다고 해서 양심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8·15 특별시면 대상에서 양심수는 한명도 없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몇번의 특별시면을 보면서 김영삼 정권 들어 발생한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등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은 현재 거의 대부분이 풀려났다. 특히 작년 8월 15일,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세세대안에 있던 한총련에 몰려 놓고, 부정부패에 일몰했던 총재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사해해 버렸다. 그러나 그 때도 양심수는 한명도 없었다. 이는 김영삼 정권이 인권침해·군사독재 시절보다 더하여 더해서 더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민정권 하에서도 양심수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국가보안법과 집사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각종 노동관련법 등 민주주의 법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말이 문민정권이 갖고 있는 양심수에 대한 시각 등을 알아보았다.

원장자

지 군사독재 시절에 있던 악법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런 법을 여전히 사용해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 징용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영삼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 김영삼 정권은 민주주의와 독립성이 통치 형태로 반영된다. 따라서 강제연행이나 강압적인 수사, 고문 등이 아직도 자행될 수 있는 것이다.

본국 국기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정희(朴正熙) 교수가 이번 식별 대회에 올랐다가 체포되었는데, 박교수에 대한 생각은 박정희 교수는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지식인이다. 학생들은 데리고 답사를 다니며 일제잔진의 침신과 민족항의의 횡설을 위해 노력하신 남다른 학자적 양심을 지운 분이다. 또한 통일을 위해 학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국기보법상 간첩죄로 구속된 것은 민족의 본단이 기관은 비극이다. 아직도 이 광이 네 전과 공안의 논리에 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선에 있을 때마다 국방부원회에 국방부원회에 대한 탄원은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한총련에 대한 탄원이 예전에는 경찰 보도도 치밀하고 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총련을 이직단체로 규정하고 탈퇴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구속하겠다는 발상은 예전 어느 경관도 하지 못했던 발상이다. 그리고 그들을 정권은 자신의 차지인 대선자금과 부정부패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실수와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한총련의 실수와 잘못이 정권의 탄핵 범위가 되어선 안되고, 대군나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학생들이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김영준 기자

기자들

한총련 지키기

2회 개강이 되자 배움터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 방학동안 ‘외래전’ 까지 물려 한총련 강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용인 배움터에서는 매일 아침, 단과대 학생회장을 동아리와 등교하는 학생들이 선전전을 해하고 있다. 이들은 한총련의 혁신과 강화를 위해 한총련 간사·사회·한총련 이직단체 규제와 할찌감치의 규제, 수배 등의 공안한증 중지 등을 내걸고 청우회와의 산연을 받고 있다.

한총련이 지난 7월 말 치른 출범식 이후 국·민과 학생들에게서 폭넓은 대중성과 대중성이 있어 대중성이 있다. 이를 확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학생운동의 혁신을 위한 모포조차 가질 수 없다. 한총련의 간부는 모두 공개 혹은 내부수습을 받고 있거나 아니 수습되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법대·교대·과대교 학생들은 한총련 이직단체 규제에 대한 한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한총련 탈퇴강요로 인한 공안 단장의 핵심고지법을 법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 던신이 많이 실주되었다. 또한 출범식을 막으려는 공안국의 최후단계 진압무기로 인해 방어차원에서 나온다. 학생들이 대체로 출범식과 쇠퇴파프로 대처되는 폭력성이 부각되었다.

시위현장에서 지나쳐 본 적이 있다면 시위를 진압하려는 경찰과 진압경찰기를 보았을 것이다. 진압무기는 ‘날진’, ‘날진’과 같은 이름으로 당시에 차운 이후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거의 맴돌고 진압무기에

허운숙 기자

한국후고꾸,

명동성당 단식농성 진행

경기도 인천시에 있는 한국후고꾸 노동조합은 평동성당에서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에서 시장에 대한 용역업체들에 의해 낸다. 남한후고꾸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평일과 토요일에 한총련을 위한 변화를 모임(민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회의회(민교회) 등 30여개의 민주시민단체가 참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단체들은 “일간조선과 국우단체들이 ‘나는·통일인생’ 책의 저자인 이정호 교수와 편집자인 융공으로 모친, 저자의 사회학자·학자적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리며 “문화·사상·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건전한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통일논의를 형성해 폐쇄되는 일간조선과 관련 국무 단체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결의한 경찰연·통일협회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본보 696 호 8면 참고).

이준구 조종위원장 강제연행

5기 한국대학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 위원회(조통위) 위원장 이준구(전국대학생회장)군이 지난 9월 2일(화) 경찰에 연행했다. 이준구 조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에 은신하고 돌아가려던 경복중이던 경찰에 의해 불집혔다. 이준구 조종위원장은 지난 6월 한총련에 출범식을 주도하고 이식서 심해치사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군은 지난 8월 쿠비 바니에서 열린 1차 세계평화총연대에 강연장을 대표로 참석해 출연료를 보상한 후 차운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경위원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수) 전남대 어를 농활발대식에 참석해 연설한 뒤 학교를 빠져나갔으나, 미행중이던 경찰경찰을 보안수사대에 불집혔다.

직금 우선 변제' 위한 결정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차곡차곡 모은 퇴직금, 다 날릴 위기 기업의 퇴직연금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 시급



한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원 판결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기업 부도시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대책이 급선무다.

8월 21일 한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기업 파산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심각한 위기へ 놓이게 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기업 파산시 일금 3개월치, 퇴직금 전액, 재해보상금은 절감, 저당권은 앞서 퇴직금으로 변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법재판소가 이를 뒤집었다. 그들 판관들은 내세운 근거란 한법상의 시유재산권 보장이나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노동자의 퇴직금은 매월 지급받는 일금의 일부를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적립한 '임금' 그 자체다. 다른 재권자들은 기업부도에 돈을 빌려줄 때 저당권 설정 등으로 사전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퇴직금에 대해 사전조치도 불가

능하다. 특히 기업의 도산은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명백히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특별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 도입 조정으로 기업 도산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걸 결정은 나왔다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법재판소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법 체계를 스스로 부정했다. 노동자들은 생존권보다 금융기관과의 채권보증을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퇴직금 우선변제가 치명적인 걸림돌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사실의 패족이다. 또 사용자가 경영권을 휘두르고 있으며, 노동자의 경영참여 요구가 번번이 거부되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한법재판소의 결정은 경정성장을 상신했고 저지경이기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의 결정으로 이제 89년 이후 퇴직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수권권을 갖고 있던 부도업체 노동자의 권리가 완전히 충당되었다. 97년 상반기 제3회 임금은 6516원이며 노동자에 1529원임이며 최근 기아 및 협력업체의 노동자의 체임까지 합하면 4000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일자리가 절은 것도 종종인데 퇴직금까지 전액 보상받지 못하게 된 도산기업 노동자들의 질망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또 법부가 악속한 퇴직금 우선변제를 현실화하는 과정에 따라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퍼져나온다.

더욱 주목할 것은 최근 경제불황과 산업구조 조정으로 기업 도산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걸 결정은 나왔다는 점이다. 89년 임금우선 변제 조항은 신설 이후 파산한 기업의 노동자를 이 한분야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안정을 저촉한 노후 생계수단을 모두 빼앗았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경리하고 특별법, 근로기준법 도입 추진을 통한 대량해고와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노동자 죽이기'이다. 이는 일면적으로 경리하고 고용유지를 희생하여 노동자들에게 파산하면 퇴직금마저 받지 못하는 불안감을 야기, 근로의욕과 귀속감을 저하시켜 오히려 생활안정화시키고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비롯한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충족시켜 유민들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기쁘다. 또 사용자가 경영권을 휘두르고 있으며, 노동자의 경영참여 요구가 번번이 거부되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한법재판소의 결정은 경정성장을 상신했고 저지경이기도 부합하지

외대 노동조합 위원장 장건씨를 만나

"현재는 행복추구권을 빼앗아 버렸다"

한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 이에 본보는 외대 노동조합 경건 위원장을 만났다. 퇴직금 우선변제 제도의 시행배경, 앞으로 미칠 영향 등을 들어보았다.

린자

세계적으로 퇴직금 우선변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몇 나라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국가는 인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즉 기업이 부도가거나 노동자가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국가는 그 사람의 안정적인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너무나 악화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의 인금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자리를 요구해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금하고 근로자를 보호함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퇴직연금보험)

가입을 의무화,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보험을 하셨던지 6개월이 지난음에도 내년 상반기이나 퇴직연금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급히 관련 법령 즉, 법인세법을 손질해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정성희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경기 지역으로 미루어보면 퇴직연금보험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금하고 근로자를 보호함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퇴직연금보험)을 의무화,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보험을 하셨던지 6개월이 지난음에도 내년 상반기이나 퇴직연금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급히 관련 법령 즉, 법인세법을 손질해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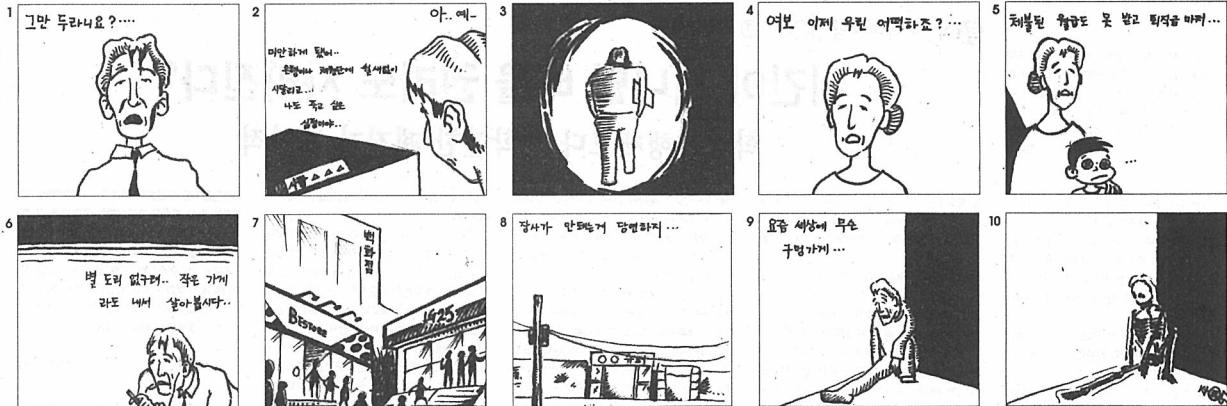
질권 - 목적물을 말아 두었다가 깊이 알 때 그 목적물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당 -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으로 차권자가 그 담보에 대해 다른 차권자에 우선해서 차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김영준 기자

만약 퇴직금이 없다면



사랑과 믿음의 동부그림

물고기는 어항속에서 한동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먹을 것을 늘 넘쳐났고, 위협하는 적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물고기는 어항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어항밖의 세상이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바깥 세상에는 무시무시한 물고기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엄마 물고기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밤, 물고기는 바다를 향한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물고기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계속 헤엄쳐 갔습니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남다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지금처럼 훈차 않은 시대에
한발 앞서 자동차보험의 미래를 열어온 동부화재—
도전하는 젊음과 함께, 새로운 보험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자동차보험의 전통을 이어가는
동부화재

글 실 순서

1. 학생회와 학생과의 공통분모는...
2. 공안탄압의 실태
3. 한총련, 그들로 과연 이적단체인가
4. 학생회, 그 혁신의 원장을 찾아
5. 죄단회·학생운동의 재도약을 위하여

학 생회 활로를 모색한다 - ② 공안탄압의 실태

당신도 좌경용공세력이 될 수 있다

폭압적 공안탄압으로 학생회 사업 위축



김영삼 정권의 광복한 탄압으로 하루 14명꼴로 연행되고 있다.

작년 8·15 연세대 통일부장과 올해 5기 한국대 학총련 회장(한총련) 출범식 이후 김영삼 정권은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총련 내부에서 일고 있는 혁신을 위한 자리는 움츠려들고, 구속자 수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본보는 이러한 공안탄압의 실태는 무엇이며, 방학기간 불어닥친 서울 용인배움터에 대한 공안탄압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한총련 출범식 이후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규정되면서 소속대학의 모든 학생회장들이 구속 또는 수배방문이 되거나, 나 또한 폴리스 국가를 전진하려는 세력의 일인아 되어면서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에 있던 학교의 경우 방학중에도 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살피보기로 한다.’

학 칙 의 독소조항 짐짓 - ② 재학연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수많은 학칙들. 그중에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도 있고 철폐해야 할 악덕조항도 있다. 지난해의 ‘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학생들의 배울 권리에 기록하고 있는 ‘재학연한’에 대해 알아보기로 폐쇄도 절여본다.

편집자

시간이 지나면 배울 권리도 사라진다?

학점은행제보다 재학연한 폐지가 효과적

교육법 11조에는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내지 6년으로 한’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 교육법에 따라 우리학교 수업연한은 4년, 재학연한은 6년, 재학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학적을 상실하게 된다. 즉, 6년이 지난 후에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재학연한된다.

이것은 학사제적과 미전자제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움을 포기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와 이런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특정부분이 결집된 한 인간에게 그 부분을 갖출 수 있어

도록 주는 것이다. 그것이 교육의 본질적 역할이다. 어떤 이유에서도 특정인에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또 본인의 의사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학비를 벌여서 고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가난’이라는 이유로 배움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 학교 학회 제 8회에 있듯이 ‘우리 학생은 기본단위로 하며, 휴학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한 학기만 쉬면서 돈을 벌 수도 없고, 2년 이상의 휴학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와 학비마련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다.

기할 만한 것은 휴학의 경우, 교육법에 그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이 휴학을 2년 이상 하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최소 단위도 1년으로 같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전제적으로 봤을 때 제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위권대학과 한 학생이 재학연한과 초과제학을 때 그 학생은 그 대학에서 ‘질린 것’이 아니라 대학으로 서의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그 학생의 수준은 중·하위권 대학의 학생수준보다 나을지도 모르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교육행정이

피교육자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셋째, 시대적 추세와도 어긋난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학점은행제 등의 움직임은 모두 열린 교육, 평생 교육 등을 표방하고 있음

다. 물론, 재학연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맞지 않다. 물론, 사회교양시설 등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및 재학연한 폐지에 대한

학점은행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평생연한을 제

지하는 것이 계속적 배움이라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 즉 그 어떤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재학연한으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문

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재학연한의 폐지

이다. 그것이 삶의 질이나 기타 사유에 의한

폐지의 기회를 막을 수 있다.

이화진 기자

특

집

자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